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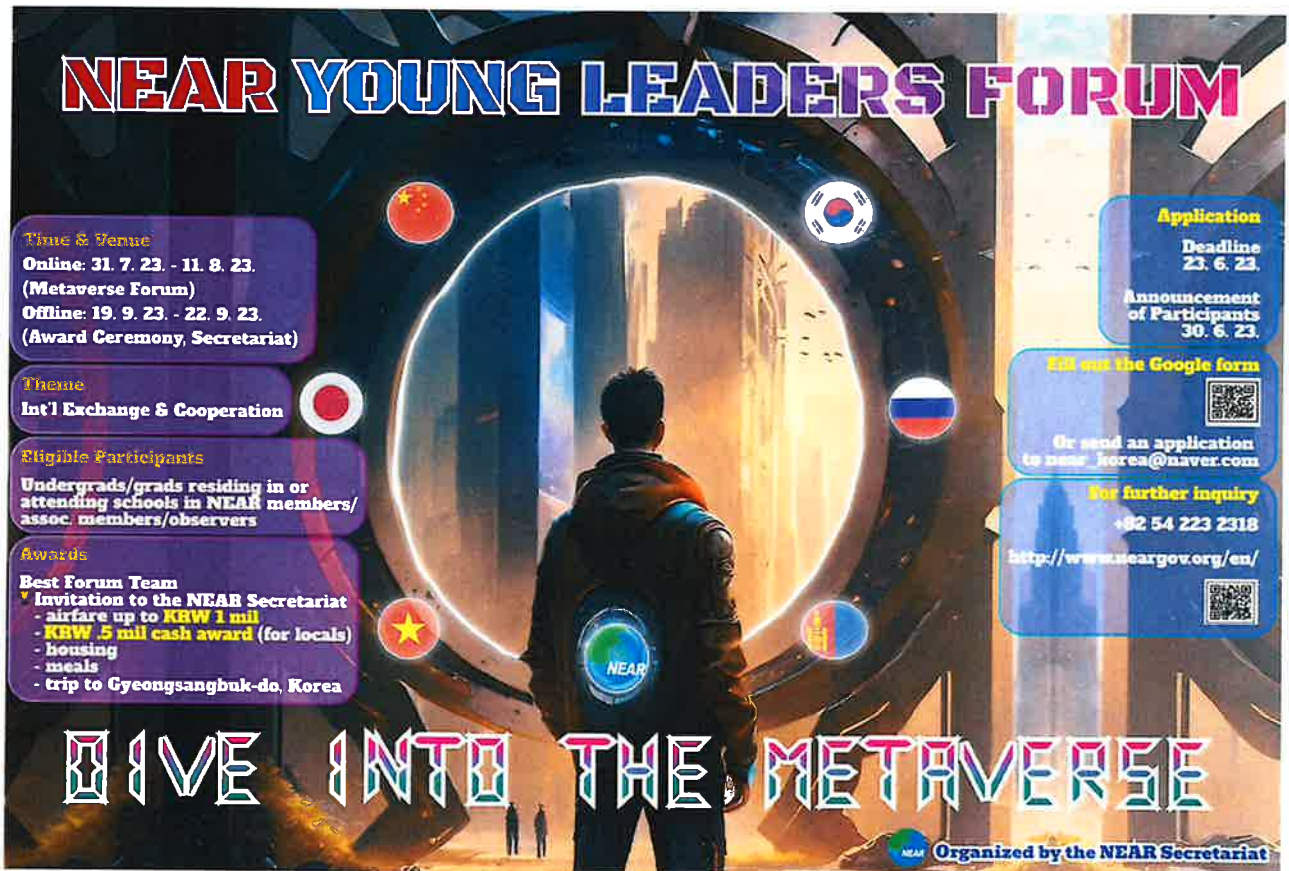
2023.06.20.(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일보	메타버스서 동북아 6개국 청년 만나다	
2	신문	경안일보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공간서 열린다	
3	인터넷	서울매일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4	인터넷	CBN뉴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5	인터넷	세계타임즈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6	인터넷	전국안전신문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7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메타버스서 동북아 6개국 청년 만난다

김창원 기자 | 승인 2023.06.21 | 11면

7월 NEAR 청년리더스 포럼 개최
환경·청년정책 등 그룹 발표·토론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스터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베트남 등 6개국 청년들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나 청년리더스 포럼을 연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하 NEAR)에 따르면 다음달 31일~8월 11일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NEAR는 1996년 한, 중, 일, 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무국은 포항에 있다.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선정해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기존 대면방식이 아닌 3D 아바타로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 국제교류의 장을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했다.

청년리더스포럼 영어참가자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어 참가자 구글폼을 작성해 다음달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neargo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원 기자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공간 서 열린다

✎ 김구동 기자 Ⓞ 승인 2023.06.20 20:47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실시

[경안일보=김구동기자]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6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들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룹들 중 최우수 1팀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어느 장소에 있든 관계없이 많은 청년들이 3D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해 국제교류의 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디캐릭’과 협업해 최첨단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본 원칙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리더들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인적 유대가 바로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은 청년리더스포럼이 끝난 뒤에도 구축된 메타버스 NEAR World에서 회원단체들에게 가상 회의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1번 열리는 대면 회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영어참가자는 23일까지, 한국어 참가자는 구글폼을 작성해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neargov.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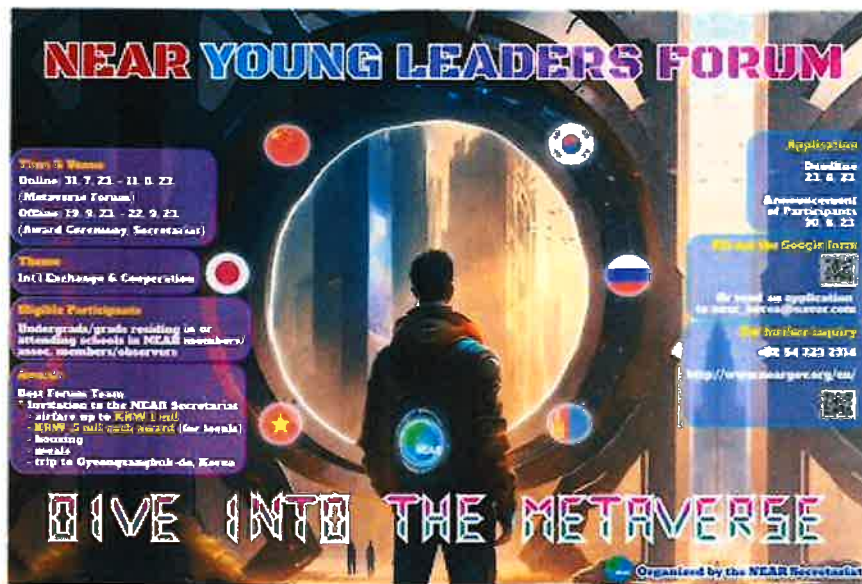


김구동 기자 ga7799@naver.com

저작권자 © 경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류효환 승인 2023.06.20 15:50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6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 주제로 해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들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룹들 중 최우수 1팀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쥐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3D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해 국제교류의 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디캐릭'과 협업해 최첨단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했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본 원칙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리더들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인적 유대가 바로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년 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은 청년리더스포럼이 끝난 뒤에도 구축된 메타버스 NEAR World에서 회원단체들에게 가상 회의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1번 열리는 대면 회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영어참가자는 <https://forms.gle/3aMhCLW6PBF6W6iAA>

6월 23일까지, 한국어 참가자는 <https://forms.gle/MwLS6YDhZ7if6Y7o8> 구글폼을 작성해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neargo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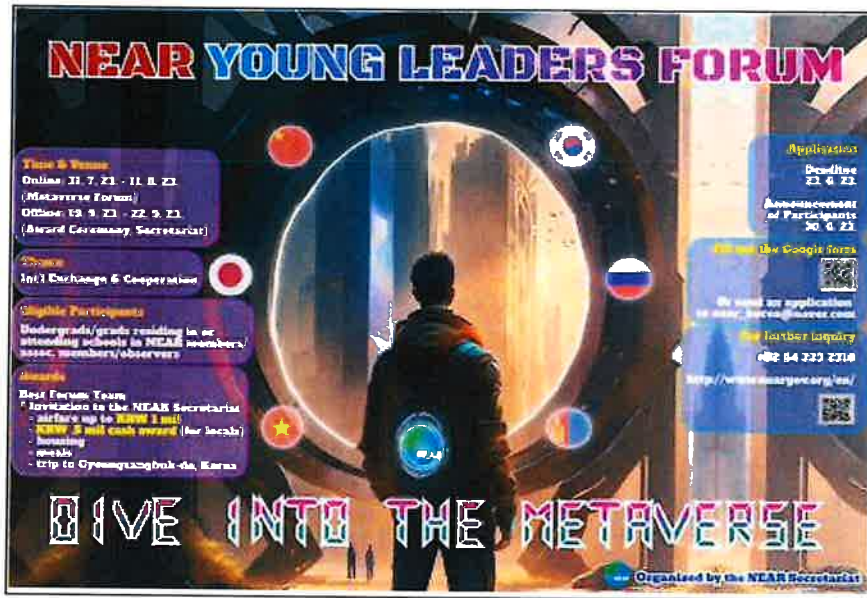
/류효환 기자



류효환 shilbo@naver.com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2023년 06월 20일 [cbn뉴스]



↑↑ 포스터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6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하여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들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룹들 중 최우수 1팀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는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3D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하여 국제교류의 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디캐릭'과 협업하여 최첨단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본 원칙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리더들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인적 유대가 바로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은 청년리더스포럼이 끝난 뒤에도 구축된 메타버스 NEAR World에서 회원단체들에게 가상 회의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1번 열리는 대면 회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영어참가자는 <https://forms.gle/3aMhCLW6PBF6W6iAA> 오는 23일까지, 한국어 참가자는 <https://forms.gle/MwLS6YDhZ7if6Y7o8> 구글폼을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neargo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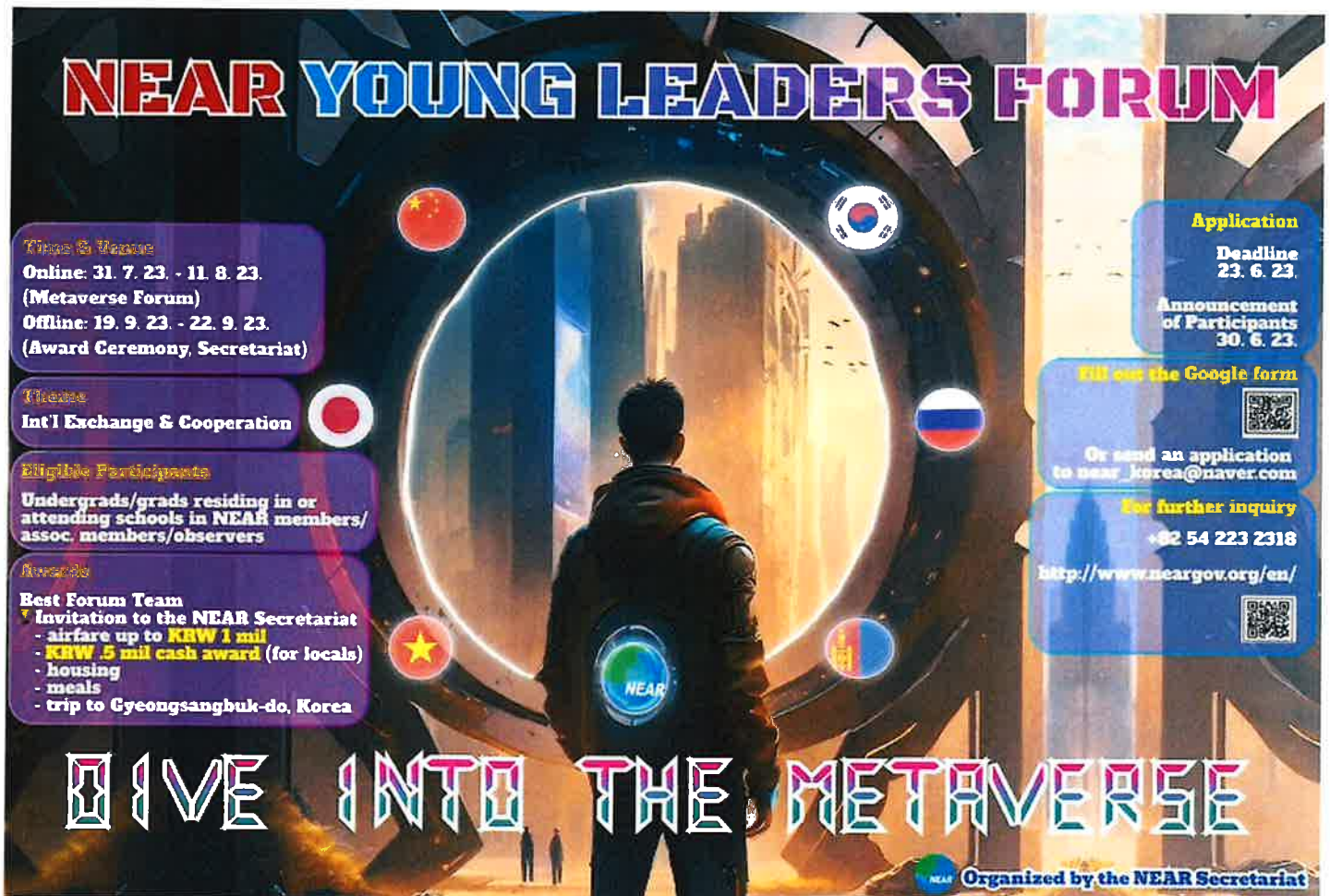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한성국  / 기사작성 : 2023-06-20 08:19:20



NEAR YOUNG LEADERS FORUM


Time & Venue
Online: 31. 7. 23. - 11. 8. 23.
(Metaverse Forum)
Offline: 19. 9. 23. - 22. 9. 23.
(Award Ceremony, Secretariat)


Theme
Int'l Exchange & Cooperation

Eligible Participants
Undergrads/grads residing in or
attending schools in NEAR members/
assoc. members/observers

Awards
Best Forum Team
Invitation to the NEAR Secretariat
- airfare up to **KRW 1 mil**
- **KRW 5 mil cash award** (for locals)
- housing
- meals
- trip to Gyeongsangbuk-do, Korea

Application
Deadline
23. 6. 23.
Announcement
of Participants
30. 6. 23.

Fill out the Google form

Or send an application
to near_korea@naver.com

For further inquiry
+82 54 223 2318
<http://www.neargov.org/en/>


DIVE INTO THE METAVERSE

Organized by the NEAR Secretariat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6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들

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룹들 중 최우수 1팀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3D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하여 국제교류의 장을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디캐릭'과 협업하여 최첨단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본 원칙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리더들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인적 유대가 바로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은 청년리더스포럼이 끝난 뒤에도 구축된 메타버스 NEAR World에서 회원단체들에게 가상 회의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1번 열리는 대면 회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영어참가자는 <https://forms.gle/3aMhCLW6PBF6W6iAA> 6월 23일까지, 한국어 참가자는 <https://forms.gle/MwLS6YDhZ7if6Y7o8> 구글폼을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neargo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3/06/22 [10:16:00]

편집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6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들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룹들 중 최우수 1팀에게는 상금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기존의 대면방식이 아닌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는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3D 아바타로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하여 국제교류의 장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디캐릭'과 협업하여 최첨단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본 원칙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리더들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인적 유대가 바로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은 청년리더스포럼이 끝난 뒤에도 구축된 메타버스 NEAR World에서 회원단체들에게 가상 회의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1번 열리는 대면 회의와 함께 필요할 때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영어참가자는 <https://forms.gle/3aMhCLW6PBF6W6iAA>
6월 23일까지, 한국어 참가자는 <https://forms.gle/MwLS6YDhZ7if6Y7o8> 구글폼을 작성하여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neargov.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NEAR 청년리더스 포럼 포스터 >



<메타버스 속 현실과 가상을 포괄하는 NEAR World와 행사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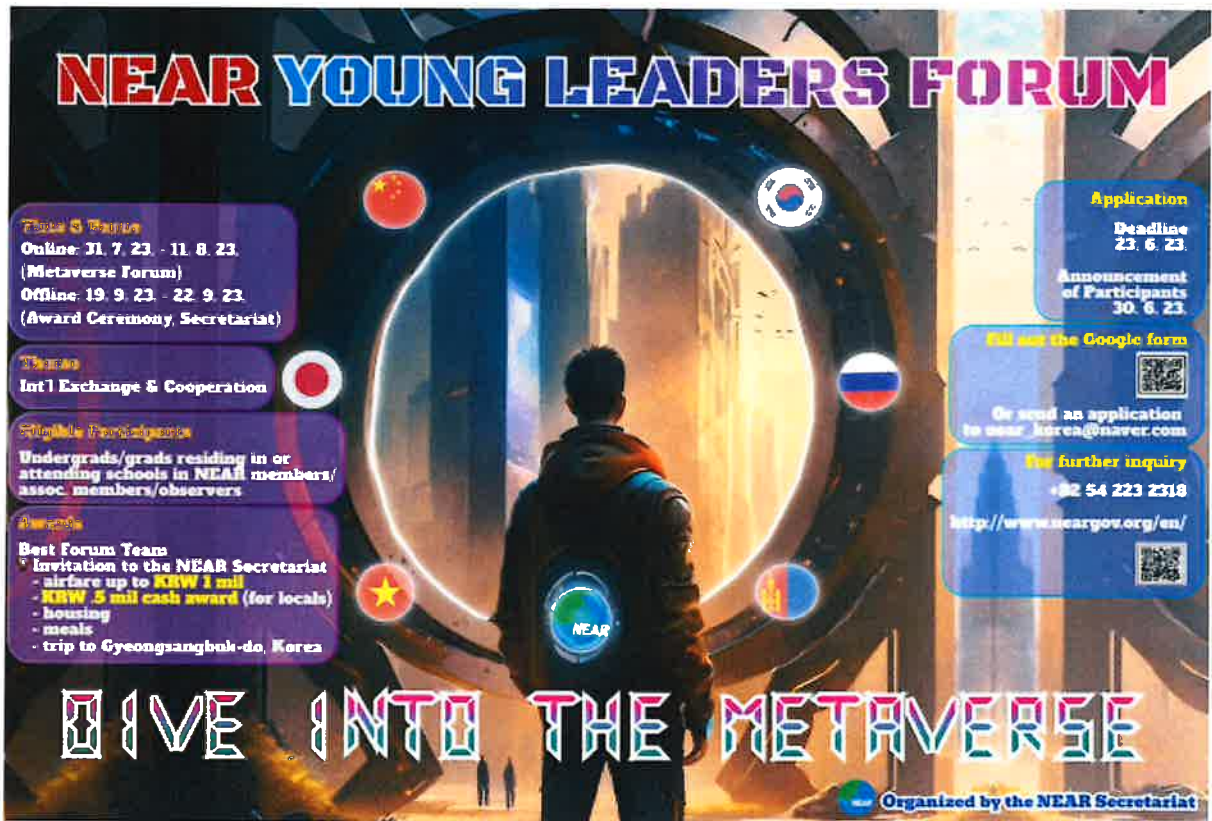


<메타버스 속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NEAR 홍보관 구현>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개최

✎ 박영기 Ⓞ 승인 2023.06.20 09:35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국제 교류·협력'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2023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6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청년들이 교육, 문화·관광, 환경, 청년정책 등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청년들만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NEAR 사무국은 이번 포럼을 위해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디캐릭'과 협업하여 최첨단 플랫폼인 '인게이지'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NEAR World를 구축하였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기본 원칙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젊은 리더들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인적 유대가 바로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NEAR 사무국은 청년리더스포럼이 끝난 뒤에도 구축된 메타버스 NEAR World에서 회원단체들에게 가상 회의장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79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이다.



박영기 pakryk2002@naver.com